

## 일-가정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효 정(제1저자)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

김 성 숙(공동저자)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

조 동 혁(교신저자)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Kim, Hyo Jung(First Author)

Dept. of Projec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h.D program)

Kim, Seong Suk(Co-Author)

Dept. of Projec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h.D program)

Jo, Dong Hyuk(Corresponding Auth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In modern society, married women, who have been mainly in charge of parenting and care within the family, are rapidly increasing their social

advancement, and the level of demand related to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arental role for their children ha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patriarchal perception that still remains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housework and childcare to women, and the double role burden of work and family is increasing job stres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parenting sharing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balance,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for working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work-family balance conflict had a positive (+)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econd,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Third, parenting sharing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sharing has a moderating effect.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compatibility of Work-family conflict between employment mothers and provide basic data for desirable parenting behavior for children.

*Keywords* : Working Mothers, Work-family Conflict, Parenting Stress, Participation in parenting, Rearing Attitudes

접수일(2022 05월 26일), 수정일(2022 05월 30일), 게재확정일(2022년 05월 30일)

##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을 담당해온 기혼여성이 사회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수요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박정윤, 장영은, 2013). 특히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인식은 여성의 가사·육아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이중 역할 부담은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다(김효정, 2010). 이처럼 취업모는 퇴근 후 육아·가사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취업 스트레스가 남아 가사·육아로 이어질 경우 육아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갈등은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하며, '균형'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개인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웰

빙의 핵심이다(OECD, 2011). 일-가정 양립 연구 초기에는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주목하였는데(손영미, 박정열, 2015), 이는 어머니의 주요 역할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의 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부부 역할 분담이 크게 달라졌고, 남성들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김연하, 2019).

일과 가정 간 부모는 주어진 각각의 역할들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장시간 근무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정유진, 2018).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직업역할과 가정에서의 가정역할을 모두 수행해내기가 어렵다. 이처럼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압력이 상호 양립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가정 양립 갈등이라고 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공영숙, 임지영, 2012),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근용, 이은정, 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 부모의 심리적 관계를 예측하고 자녀의 부정적 행동을 유발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nthony et al., 2005).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며 반복적이기 때문에 간과되기 쉬운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평소에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장하용, 김지애, 2009).

종합해보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양립갈등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다루어 왔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분담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고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일-가정 양립갈등

역할 갈등은 역할 내 갈등과 역할 간 갈등으로 분류되고 있다(정유진, 2017). 역할 내 갈등은 특정 역할에 기대되는 역할이 다중적일뿐 아니라 역할 기대들이 서로 상반될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역할 간 갈등은 서로 이질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특성을 요구하는 다중역할을 가질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유진, 2017).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직장 과 가정 두 영역 모두를 공통의 원인으로 하면서 동시에 두 영역 모두에 영향을 준다. 한 개인이 서로 상충되는 두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켰을 경우 여러 역할로부터 제공되는 특권, 자원, 보상으로 인해 만족감과 안정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으로 인하여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심리·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Thoits, 1983).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을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Frone et al., 1992; Higgins et al., 1992). Kahn et al.(1964)은 역할 갈등을 둘 이상의 역할 수행 요구를 동시에 받아서 하나의 역할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다른 역할 요구에 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urr(1972)는 한 사람이 채택하는 두 개의 다른 역할의 기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하였다. 임희정(2000)은 일-가정 갈등을 직장 과 가정으로부터의 역할압력이 상호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는데, 직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갈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직장 과 가정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았다(Parasuraman et al., 1996). 그러나 Gutek et al.(1991)이 일-가정 갈등의 방향성에 따라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이 구분된다는 것을 제안한 이후, 최근에는 일-가정 갈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arson, 2000; Byron, 2005). Gutek et al.(1991)은 직장 일이 가정의 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일-가정 갈등’으로 분류하였고, 반대로 가정 일이 직장 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가정-일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역할 갈등은 ‘일-가정 갈등’에 속하고, 자녀가 아파서 직장에 결근

을 해야 할 때 겪게 되는 역할 갈등은 '가정-일 갈등'에 해당한다(Byr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압력이 상호양립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방향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가정 갈등으로 살펴 보았다.

일-가정 양립갈등은 양 방향적 성질을 갖고 있어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이 가정 내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가정 갈등"과 반대로 가정 내 역할 수행이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Netemeyer et al., 1996).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가정-일 갈등'보다는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영희, 2006). 하지만, 몇몇 연구(Frone, 2000; 하오령, 권정혜, 2006)에서는 '가정-일 갈등'이 '일-가정 갈등'보다 결과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었다. 대체로 남녀 가족 내 역할 평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구에서는 일-가정 갈등 경험이 많은 반면, 학부모 문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가족-가정 갈등 경험이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시간이나, 직종,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의 노동 조건은 일-가정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ryee & Luk, 1996; 김명원, 강민주, 2011; 김소정, 2016).

## 2.2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및 신체적 긴장 상태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신체적 질환이나 심리적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국립국어원, 2020). Lazarus & Folkman(1984)는 스트레스가 개인 또는 환경의 단일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둘 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장 밀접한 가족생활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부모 역할이 주어졌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한준아, 김지현, 조윤주, 2014). Mulsow(2002)는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이희정, 2011). 또한, 안지영(2000)은 양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서 정의하였으며, 이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긴밀히 연관된 변인으로 부의 양육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이인정과 김미영(2014)은 맞벌이 부부의 가장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육아스트레스를 꼽으면서 남편과 아내의 육아스트레스가 상대방의 육아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호 정서적 지지의 주요 요인이다(김상림, 박창현, 2016; 현정환, 2018). Deater-Deckard(2004)는 주 양육자의 정신건강 내적인 특성과 더불어 취업,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서 정의 하였다(박정아, 현은자, 2018). 정승희와 최성규(2006)는 어머니의 기질, 행동, 성향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온도가 맞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Abidin(1992)은 양육자가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서 양육스트레스를 정의하였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부모의 역할 수행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최윤정, 한유진, 2017).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 중 느끼게 되는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이며(안지영, 2000), 부모역할수행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죄책감과 긴장감을 포함한다(김기현, 강희경, 1997). 아버지가 능숙하지 못한 양육수행을 할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지만(황정해, 2005), 아버지 양육참여로 자녀와 친밀감이 형성되고 효능감이 향상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남효정, 이숙현, 201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정혜, 2016).

### 2.3 부정적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으로,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 영역 발달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이원영, 1983). 양육태도는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양육태도 요인들이 사회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Symonds(194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과보호적, 우세적-복종적 두 차원으로 양극화하여 분류하였고, 각 유형 사이에 익애, 무시, 방임, 잔인 등을 추가하여 도식화하였다. Schaefer(1959)는 30년간의 기록에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과 거부, 자율과 통제로 구분하여 애정·자율형, 애정·통제형, 거부·자율형, 거부·통제형으로 구분하는 모형 PARI(Parental Attitude ResearchInstrument)를 제시하였다. Schaefer 이후의 학자들이 분류한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Becker(1964)는 온정·적대, 허용, 지나친 관심·침착한 방관의 3개의 차원에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으며, Rosen 등(1972)은 관심·무시, 지배·복종, 민주·독재, 수용·거부의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Rohner(1986)는 수용적, 거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Baumrind(1991)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각 차원의 정도에 따라 규칙과 행동교범을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고 복종을 권장하지 않는 허용적 양육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이성적인 설득과 명백한 권위 등을 이용해 행동을 통제하는 권위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원식(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안일, 보호-방임, 개방-폐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한종혜(1980)는 민주·자율-권리·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원영(1983)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박영애(1995)는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이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으며, 허묘연(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 자율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차원으로 8가지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또한, 박주희(2001)는 양육태도를 온정·격려, 한계설정, 거부·방임, 과보호·허용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거부·방임적 양육태도로 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2.4 양육분담

가정의 양육환경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지난 수십 년간 강조돼 왔다(Lamb & Lewis, 2013; Roggman et al., 2013). 국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06년 이후 급증하였다(이정순, 2003; 미현, 최혜순, 2014).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연구 경향에 차이가 있으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헤미, 이희영, 2012). 2018년 기준 아버지 양육참여율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만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의 17.8%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 2019).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개념이 유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에서 점차 긍정적인 참여 활동, 공감과 책임감, 통제로 옮겨가고 있다(Pleck, 2012).

경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유아의 감정조절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이탈은 아이가 함께 양육하는 갈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azen et al., 2010; Ilegos et al., 2017). 전숙희와 이희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적 통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놀이나 기능적 놀이에 참여하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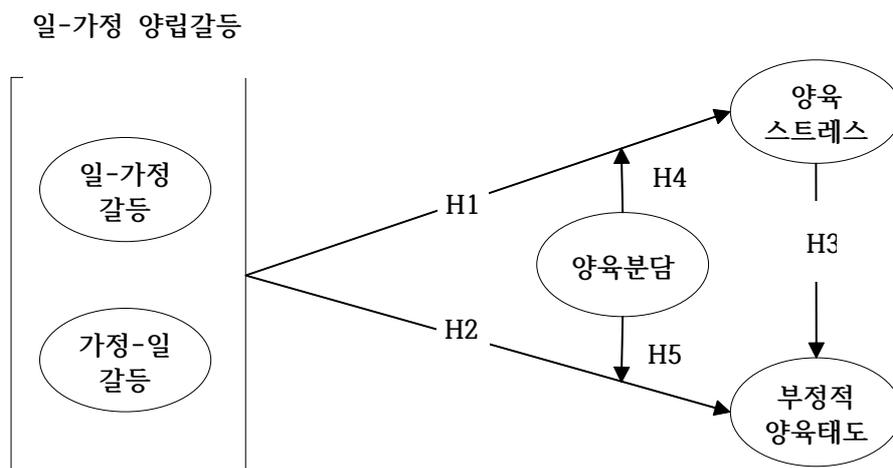
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적 통제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익새와 남은영(2015)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 돌봄 및 지도 양육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정서적 통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orres et al.(2014)는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아빠의 양육참여를 급식 등 직접 돌봄, 자원배치 등 돌봄 활동, 기술과 규칙을 가르치는 생활지도, 놀이, 가정 외 여가활동 등 5가지로 분류했으며, 아빠의 야외 여가활동 참여는 미취학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분노-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명이었으며, 엄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낮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깊었다.

### Ⅲ.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갈등의 하위요인인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으로 구성된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영향관계,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영향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영향관계, 양육분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정의된 개념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수정하고 설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가설설정

### 3.2.1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현재까지 육아문제는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함께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맞벌이 부모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정숙, 2006).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더불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Kim, 2015). 지금까지 진행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취업모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의 이중 부담으로 전업주부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김은정 등, 199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였고(김현희 등, 2009), 취업 주부의 역할갈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과 돌봄에서 초래되는 역할갈등이 다른 영역의 수준보다 높다고 하였다(김기현, 조복희, 2000).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일-가정 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가정-일 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 및 촉진과 직업만족도가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낮고, 일-가정 촉진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한의선,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역할 갈등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시간갈등이 높을수록 한계설정 양육태도가 낮았고, 과보호·허용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나, 이상수, 2009). 긴장갈등이 높을수록 온정·격려 양육태도가 낮아졌으며, 과보호·허용과 거부·방임 양육태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 갈등이 높아질수록 거부·방임과 과보호·허용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과 양육 죄책감 간의 관계가 동시에 많은 역할을 해 기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 약화된 안녕 등 나쁜 심리적 결과로 이어진다(Rijswijk et al., 2004; Rodriguez, 2009). Borelli et al.(2017)은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의 죄책

감을 연구해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일-가정 죄책감을 제시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고 장시간 일하는 어머니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죄책감이 높다. 가족의 의무가 직장 일을 방해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에서의 의무가 가정생활을 방해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죄책감과 적대감을 더욱 쉽게 느낄 수 있다(Judge et al., 2006).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일-가정 갈등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가정-일 갈등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유아는 양육자의 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민하영, 이영미, 2010),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이영미, 2009; 서석원, 이대균, 2013).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거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민하영, 이영미, 2010),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어머니는 신체적 통제, 언어적 적대감, 비논리적 훈육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신지연, 2011).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덜 보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현령, 류수민, 2015). 전춘애와 박성연(1996)은 양육태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 유아의 행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4 양육분담의 조절효과

김명원과 강민주(2011)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성 평등적 성역할 태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하였고, 박선주와 강민주(2017)는 아버지가 양성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양육분담이 높아졌다고 확인하였다. 남효정과 이숙현(201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낮은 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나, 양진희와 김영철(2016)은 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김유나와 박애리(2016)는 맞벌이 가정 내 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의 양

육분담과 부부간 갈등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 부의 양육분담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가졌으나 오히려 부부간 갈등이 높은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졌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1: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양육분담은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분담은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측정도구

본 연구모델의 실증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모든 측정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변수의 측정항목과 출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출처
일-가정 갈등	<p>직장에서의 요구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갈등</p> <p>일 때문에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일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못 보냄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육아를 하기 어려움 집에 있을 때도 일에 대해 걱정함</p>	유성경 등 (2012), 정유진, 전귀연 (2018), 박주희 (2020)
가정-일 갈등	<p>가정에서의 요구가 직장에서의 역할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갈등</p> <p>가정에서의 역할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종종 일에 집중이 힘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긴장과 갈등이 일의 능력을 떨어뜨림 집안일을 생각하면 일을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함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음</p>	
양육 스트레스	<p>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디스트레스</p> <p>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음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음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음</p>	김기현, 강희경 (1997), 김지현, 이지민 (2016)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로움	
부정적 양육태도	<p><i>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거부·방임적 태도</i></p> <p>자녀의 양육이 즐겁기 보다는 부담스러움 간혹 아이를 심하게 혼냄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칠 때가 많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핑계로 혼자 놀게 함</p>	<p>손창희 (2021), 정유진, 전귀연 (2018)</p>
양육분담	<p><i>배우자의 양육 분담 정도</i></p> <p>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 나와 분담함 배우자는 육아와 가사를 나와 함께 적절히 나누어 분담함 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나와 합의된 규칙으로 분담함 배우자는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함</p>	<p>Feinberg et al.(2012), 전선영 (2021)</p>

## IV. 분석결과

###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직장에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를 조사를 진행하였다.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 33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 중 7건의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치를 제거한 후 323부의 사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구성은 20대 12명(3.7%), 30대 212명(65.6%), 40대 이상 99명(30.7%)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분포는 고졸 26명(8.0%), 전문대졸 80명(24.8%), 대졸 195명 (60.4%), 대학원졸업 및 이상 22명(6.8%)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직업표본은 회사원 152명 (47.1%), 공무원 23명(7.1%), 전무직 56명(17.3%), 자영업 46명 (14.2%), 임시직, 프리랜서 등 46명(14.2%)으로 회사원 많았다. 자녀성별은 남자아이 139명(43.0%), 여자아이 184명(57.0%)으로 여자아이가 많았다. 자녀나이는 3세 36명 (11.1%), 4세 51명(15.8%), 5세 75명(23.2%), 6세 72명 (22.3%), 7세 89명 (27.6%)으로 5세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 표본의 특성

(n=323)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2	3.7
	30대	212	65.6
	40대 이상	99	30.7
학력	고졸 이하	26	8.0
	전문대졸	80	24.8
	대졸	195	60.4
	대학원졸	22	6.8
직업	회사원	152	47.1
	공무원	23	7.1
	전문직	56	17.3
	자영업	46	14.2
	임시직, 프리랜서 등	46	14.2
자녀성별	남자아이	139	43.0
	여자아이	184	57.0
자녀나이	3세	36	11.1
	4세	51	15.8
	5세	75	23.2
	6세	72	22.3
	7세	89	27.6

##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다음은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신뢰성 검증은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0.6 이상일 경우 척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은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구성 요인의 추출과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채택하여 분석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일 경우,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일 경우 KMO(Kaiser-Meyer-Olkin)가 0.6 이상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 유의확률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변수		성분				Cronbach 's α
		1	2	3	4	
부정적 양육태도	양육태도2	<b>.901</b>	.038	.072	.162	<b>.927</b>
	양육태도3	<b>.882</b>	.047	.054	.242	
	양육태도4	<b>.876</b>	.147	.141	.172	
	양육태도1	<b>.812</b>	.141	.100	.317	
가정_일 갈등	가정_일4	.114	<b>.821</b>	.282	.221	<b>.922</b>
	가정_일1	.050	<b>.809</b>	.348	.160	
	가정_일2	.162	<b>.799</b>	.313	.231	
	가정_일3	.090	<b>.785</b>	.325	.287	
일_가정 갈등	일_가정3	.109	.226	<b>.857</b>	.157	<b>.911</b>
	일_가정2	.058	.320	<b>.810</b>	.159	
	일_가정1	.071	.362	<b>.783</b>	.210	
	일_가정4	.177	.327	<b>.760</b>	.249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2	.182	.173	.272	<b>.811</b>	<b>.900</b>
	스트레스1	.263	.213	.211	<b>.790</b>	
	스트레스3	.312	.218	.175	<b>.772</b>	
	스트레스4	.327	.334	.129	<b>.728</b>	
고유값		3.424	3.256	3.189	2.988	
분산설명(%)		21.402	20.251	19.934	18.675	
Kaiser-Meyer-Olkin 측도		.930				
Bartlett의구형성검정(p)		.000				

###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일_가정 갈등	4.894	1.0397	1			
가정_일 갈등	4.585	1.2098	.695**	1		
양육 스트레스	4.512	1.1517	.523**	.575**	1	
부정적 양육태도	4.365	1.2380	.290**	.299**	.563**	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4.4 가설검증결과

먼저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 ( $t=3.854$ ,  $p=.000$ ), 가정-일 갈등( $t=6.574$ ,  $p=.000$ )은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양육 스트레스	일_가정 갈등	.265	.069	.240	3.854***	.000
	가정_일 갈등	.389	.059	.409	6.574***	.000
$R^2 = .360$ , $F = 90.132$ , $P = .000$ , Durbin-Watson = 1.84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 $t=2.147$ ,  $p=.033$ ), 가정-일 갈등( $t=2.576$ ,  $p=.000$ )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부정적 양육태도	일_가정 갈등	.188	.088	.158	2.147*	.033
	가정_일 갈등	.194	.075	.190	2.576**	.010
$R^2 = .103$ , $F = 18.292$ , $P = .000$ , Durbin-Watson = 2.007						

\* $p<.05$  \*\* $p<.01$  \*\*\* $p<.001$

이어서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 $t=12.219$ ,  $p=.000$ )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부정적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606	.050	.563	12.219***	.000
R <sup>2</sup> = .283, F = 119.170, P = .000, Durbin-Watson = 2.105						

\*p<.05 \*\*p<.01 \*\*\*p<.001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일 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은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가정 양립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beta$	t값	유의확률
일_가정 갈등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196	.713a	.476
가정_일 갈등			.465	2.082*b	.038

\*p<.05 \*\*p<.01 \*\*\*p<.001

a.일\_가정 갈등\*양육분담

b.가정\_일 갈등\*양육분담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일 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은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 관계에서 양육분담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beta$	t값	유의확률
일_가정 갈등	양육분담	부정적	.285	.922a	.357
가정_일 갈등		양육태도	.547	2.097*b	.037

\*p<.05 \*\*p<.01 \*\*\*p<.001

a.일\_가정 갈등\*양육분담

b.가정\_일 갈등\*양육분담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갈등이 양육스트레스 및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변수의 개념 및 관계성을 검토하고 직장에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갈등의 요인 중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양립갈등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갈등의 요인 중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 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의 요구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가정에서의 요구가 직장에서의 역할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디스트레스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여 거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가정-일 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및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분담은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취업모의 환경에서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일-가정 병행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을 둔 취업모의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가정 양립갈등의 영향과 부의 양육분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영향요인을 어머니의 가정 내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취업모의 직장과의 연결하여 일-가정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으려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 등에서는 취업모를 위한 서비스를 보육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직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취업모 직접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내 취업모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병행환경에서 취업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장-가정 양립갈등 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배우자의 양육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회성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가설검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과관

계를 논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원(최효식 등, 2016),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적 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특성들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63-186.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 조복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명원, 강민주 (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25-35.
- 김소정 (2016), 기혼 직장인들의 일가족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201-226.
- 김연하 (2019), 어머니의 출산 후 6 년간 우울증상 궤적과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 김유나, 박애리 (2016), 맞벌이 가구와 남성홀벌이 가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부부관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51-76.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의사직과 교사직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 125-146.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현희, 박천만, 이종렬, 신호순 (2009),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 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2), 207-219.
- 김효정 (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1), 1-33.
- 남효정, 이숙현 (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 라혜미, 이희영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46-262.
- 민하영, 이영미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7(6), 203-213.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189-201.
- 박일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정아, 현은자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2), 219-248.
- 박정윤, 장영은 (2013),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1(5), 159-172.
- 박주희 (2001), 전국 무료 양로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Doctoral dissert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창현, 김상립 (2016),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이 언어,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 서석원, 이대균 (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손영미, 박정열 (2015),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조직,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비교연구: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51-74.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진희, 김영철 (2016), 유아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
-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의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나, 이상수 (2009), 집단지성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개념모형과 설계 원리. *교육공학연구*, 25(4), 213-239.
- 이은희 (2000), 일과 가족 갈등의 통합모형: 선행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1-42.
- 이인정, 김미영 (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희정 (2011),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이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5), 99-126.
- 임희정 (2000),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갈등과 경력몰입에 관한 연구.
- 장하용, 김지애 (2009), 주부의 성격과 스트레스가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124-156.
- 전숙희, 이희선 (201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5).
- 전춘애, 박성연 (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승희, 최성규 (2006),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유형. *언어치료연구*, 15(3), 163-194.
- 정원식 (1974), 비행청소년의 자아구조 및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 정유진 (2017), 빈곤의 세대 간 이전: 부모의 빈곤지위가 자녀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유진 (2018),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제안. *인문사회* 21, 9(3), 533-541.
- 최윤정, 한유진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 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3), 1-16.
- 최정혜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비교. *코칭연구*, 9(3), 101-120.
- 하오령, 권정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 지지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75-696.
- 한희선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및 촉진과 직업만족도가 긍정

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중혜 (1980), 보고편-제 33 차 총회 및 학술대회 (각부 연구발표-아동학 및 가족관계 분야):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8(4), 115-119.
- 한준아, 김지현, 조윤주 (2014),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8(4), 525-544.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 현정환 (201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일반스트레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20.
- 황정해, 백경임 (2005),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26(3), 61-76.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33-154.
- Aryee, S., & Luk, V. (1996). Balancing two major parts of adult life experience: Work and family identity among dual-earner couples. *Human relations*, 49(4), 465-487.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Borelli, J. L., Nelson-Coffey, S. K., River, L. M., Birken, S. A., & Moss-Racusin, C. (2017). Bringing work home: Gender and parenting correlates of work-family guilt among parents of toddl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6), 1734-1745.
-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 Carson, R. T. (2000). Contingent valuation: a user's guide.
- Deater-Deckard, K., & Petrill, S. A. (2004). Parent-child dyadic mutuality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n investigation of gene-environment process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6), 1171-1179.
- Frone, M. R. (2000). Work-family conflict and employee psychiatric disorders: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888.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uendouzi, J. (2006). "The guilt thing": Balancing domestic and professional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901-909.
- Gutek,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
- Hazen, N. L., McFarland, L., Jacobvitz, D., & Boyd-Soisson, E. (2010). Fathers' frightening behaviours and sensitivity with infants: Relations with fa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father-infant attachment, and children's later outcom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51-69.
- Higgins, C. A., Duxbury, L. E., & Irving, R. H. (1992). Work-family conflict in the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1(1), 51-75.
- Judge, T. A., Scott, B. A., & Ilies, R. (2006). Hostility, job attitudes, and workplace deviance: test of a multileve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1), 126.
- Kahn, R. L., Wolfe, D. M.,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 Lamb, M. E., & Lewis, C. (2013). Father-child relationship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2, 119-13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00.
- Parasuraman, S., Purohit, Y. S., Godshalk, V. M., & Beutell, N. J. (1996). Work and family variables,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75-300.
- Pleck, J. H. (2012). Integrating father involvement in parenting research. *Parenting*, 12(2-3), 243-253.
- Rodriguez, S., Gaunt, T. R., & Day, I. N. (2009). Hardy-Weinberg equilibrium testing of biological ascertainment for Mendelian randomiz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9(4), 505-514.
- Roggman, L. A., Bradley, R. H., & Raikes, H. H. (2013). Fathers in family context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186-201.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 Rosen, E., Fox, R. E., & Gregory, I. (1972). Abnormal psychology.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 Thoits, P. A. (1983).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social support: Response to LaRocco.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1), 92-95.
- Torres, N., Verissimo, M., Monteiro, L., Ribeiro, O., & Santos, A. J. (2014). Domains of father involvement, social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amily Studies*, 20(3), 188-203.

**\* 저자소개 \***

· **김 효 정(jazz137@naver.com)**

현재 송실대학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교육품질 등이다.

· **조 동 혁(joe@ssu.ac.kr)**

현재 송실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강의 및 연구 분야는 생산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프로젝트경영, 기술경영 등이다.

· **김 성 숙(annakannak@hanmail.net)**

현재 송실대학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유아교육, 코칭심리, 교육서비스 등이다.